



# 논 평

일시: 2024.7.26.(금) 11:00

담당: 010-4660-1409(사무국장)

## 시민 애국심 부족 타령은 그만하고 주낙영 경주시장의 애국심부터 키워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의원들이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철주야 공무에 바쁘게 시달리다 보면 깜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을 위해서 황성공원에 56미터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필요하다며 혈세 7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하던 모습과 너무나 상반돼서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인사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임활 시의회 부의장, 이철우 시의회 전의장, 박광호 시의원, 한순희 시의원, 최재필 시의원, 정성룡 시의원 들이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제헌절 당일 일일이 자택을 방문하여 태극기 미게양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 대상은 태극기 게양대 사업 예산을 적극 추진한 인사에 국한했다고 한다. 우리는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추진한 주요 인사가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현재 경주시는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업비를 3억 원 이하로 축소하여 황성공원의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 높이 30미터의 게양대를 건설하고 있다. 올해 8월 15일 이곳에 태극기가 걸리면 경주시장 및 시의원들의 가짜 애국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중단해 예산을 아껴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참고 자료: <http://www.abnews.co.kr/news/view.php?no=566>